



찬양해요

찬송가 430장

기도해요

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

말씀을 읽어요

누가복음 19:12-22

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
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
 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
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디
 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
 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
 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
 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
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
 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
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
 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
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
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
 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
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

말씀 이해하기

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허락하시고 견고한 믿
 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‘열 종의 비유’를 통해서 보
 듯이 청지기 역할을 잘 했을 때에는 풍성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했을
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. 주인은 열 므나를 각각 10명의 종에게 한 므나씩 맡

깁니다. 첫 번째 종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기고, 두 번째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겼습니
 다. 마지막 세 번째 종은 한 므나 그대로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했습니다. 주인은 첫 번
 째와 두 번째 종에게 각각 그 이익만큼 고을을 차지하게 하지만 이익을 남기지 않은 종
 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며 벌하였습니다.

추석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하
 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
 봅시다.

좀 더 생각해보기

1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열 므나를 열 명의 종에게 맡기듯이, 하나님께서도 우리
 에게 재능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.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
 요(13절)?

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라 하니라

2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칭찬하였나요(17절)?

잘하였다 종이여

지극히 작은 것에 하였으니

열 고을 를 차지하라

3 한 므나를 가지고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은 종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하
 였나요(22절)?

4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이익을
 남겼는지 생각해 봅시다.

5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일터,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신 것을
 적어 봅시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켜 주
 신 것이 있으면 적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.

기도해요

하나님, 추석을 맞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, 각자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풍성한
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